2026년 11월 18일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제136차 월례집담회



AI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 소프트웨어를 매개로 한 역사연구의 심화·확대·산학화

발표자 이수화
(서울대학교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

기술 자랑이 아닙니다.
인문학의 시선이 소프트웨어를 지휘해
학문의 지평을 어떻게 넓히는지 실증하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Gemini Notebook

인문학의 재정의: 역사가·문학가·철학자 '머릿속의 시선과 모델'



단순한 지식의 축적

파편화된 사실과 기능 지식의 암기.
기계가 0의 비용으로 대체하는 수동적 영역.



체화된 인지와 구조적 접속

세상을 바라보는 고유한 시선(Gaze)과
내적 모델을 만들고 가르치며,
세계와 맞물려 세상을 이끄는 인문학의 진짜 본질.

Gemini Notebook

서사 단일 채널에서 '짚인간' 오토마타 다중 채널로



Gemini Notebook

단 하나의 씨앗에서 디지털 역사학 6대 필드로

[심화] 시선 자가 보정

노드 01 사료비판

노드 02 병렬 증거망

[확대] 오토마타 질의

노드 03 멀리읽기

노드 04 시공간 지도

노드 05 조사 실험

[산학화] 사회적 접속

노드 06 공공역사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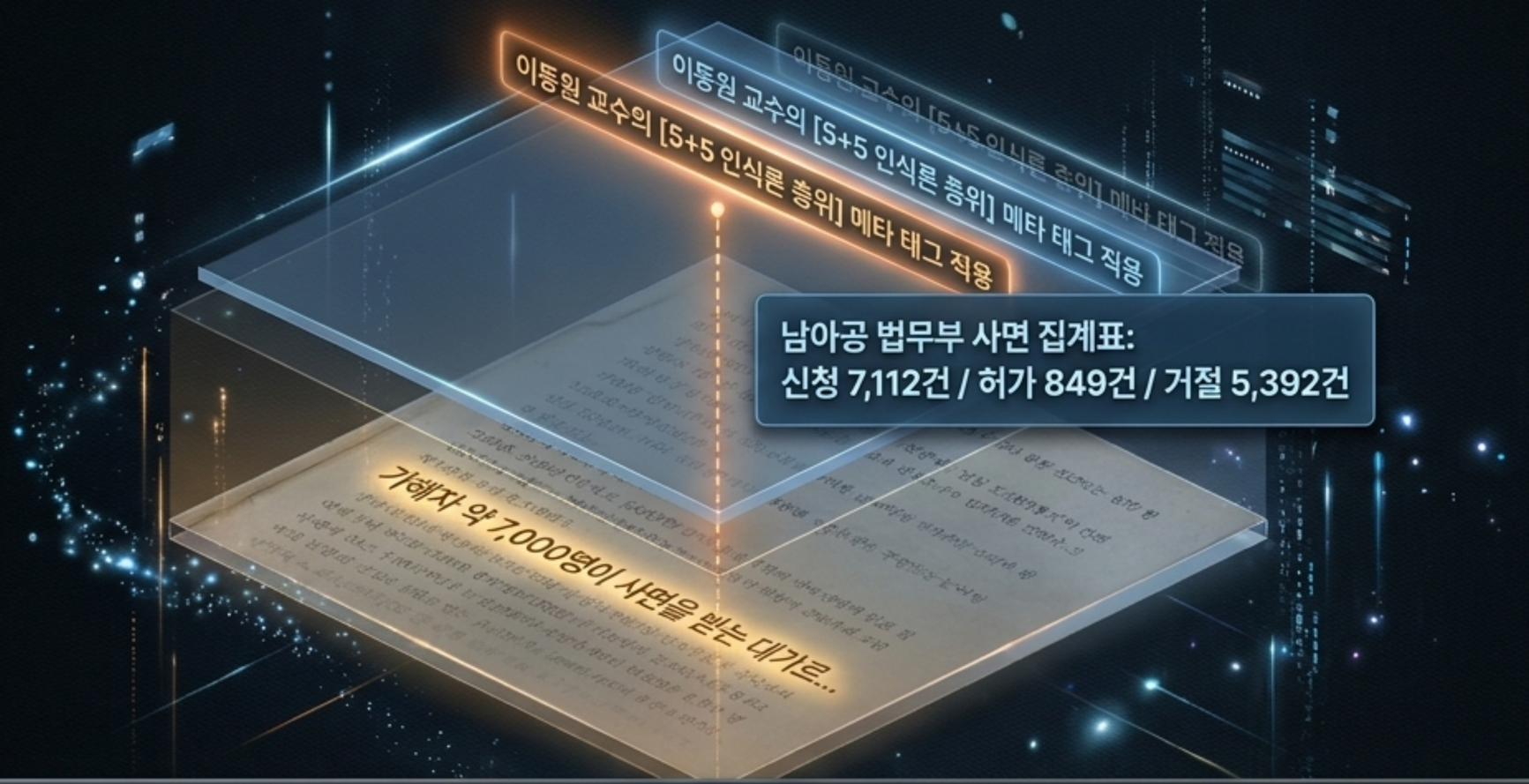


박구병 교수의
라틴아메리카 진실·화해 강연
정밀 채록본 (216문단)

도메인 지식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모두가 공감하는 현대사 구술 사료 한 편을
종적 씨앗 삼아 방법론의 극한을 펼칩니다.

Gemini Notebook

[심화 01] 사료비판: 원문의 토씨 하나 건드리지 않고 진실의 층위를 분리하다



발화의 보존과 팩트 체크의 엄격한 분리. 기계는 좌표가 비어있다고 '의도적 은폐'로 자동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토마타에 이식된 역사학적 절제입니다.

[심화 02] 병렬 증거망: 뭉개진 요약문 대신, 정상과 반론의 대칭 구조도를 세우다



매끈한 AI 요약문에 저항하십시오. 충돌하는 맥락을 병렬 가설로 보존할 때, 연구자의 내적 모델은 가장 견고해집니다.

Gemini Notebook

[확대 03] 멀리읽기: 읽은 인상에서 정량적 계량으로, 다시 원문으로 회귀하다





환각(Hallucination)의 원천 차단. 외부 코퍼스로 텍스트를 부풀리지 않고, 오직 메모리에 올라온 216문단만 엄밀하게 집계한 후 즉각 원문(p212)으로 회귀합니다. 폐쇄형 질의의 힘입니다.

Gemini Notebook

[확대 04] 시공간 지도: 출처의 경계와 결측(Missing Data) 자체를 역사 정보로 존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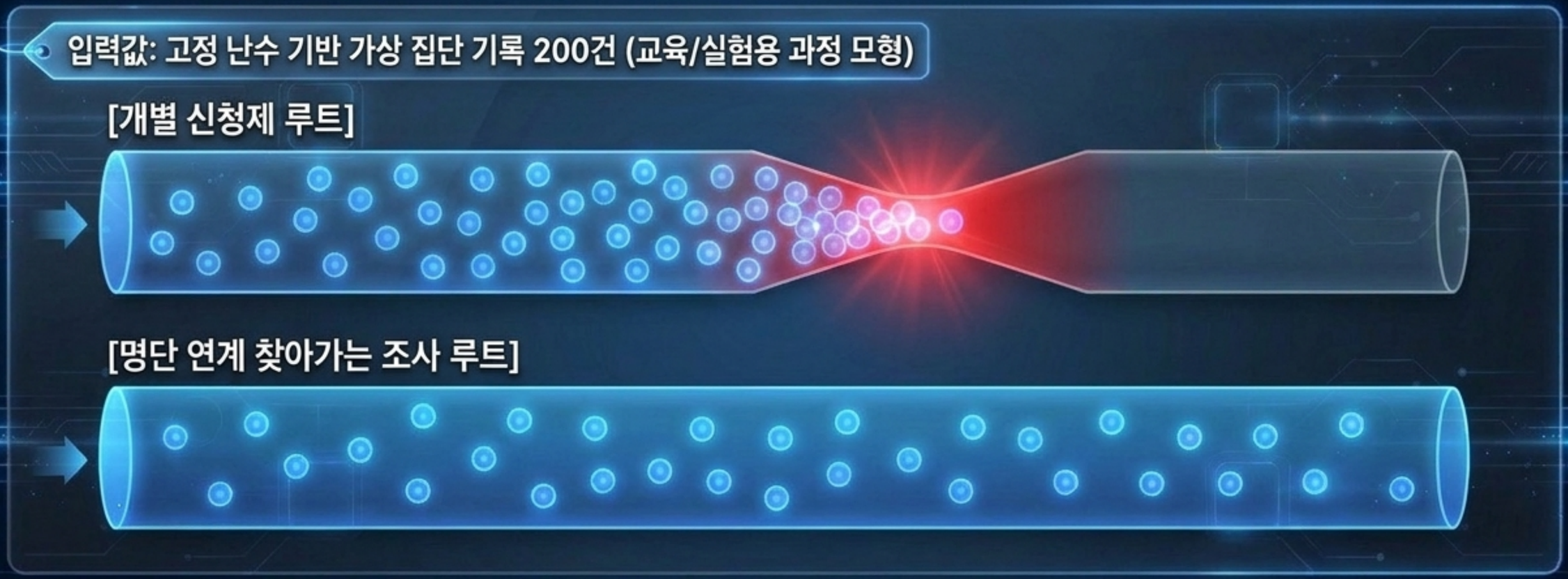


억지 합산을 거부합니다. 칠레 피노체트 희생자 원자료 중 위경도가 없는 109건의 미상 기록은 지어내지 않습니다. 지도 위에 비어 있는 공간(침묵) 역시 역사가가 해석해야 할 뼈아픈 사료입니다.

Gemini Notebook

[확대 05] 조사 실험: 제도 규칙이 만드는 침묵과 병목을 시뮬레이션하다

입력값: 고정 난수 기반 가상 집단 기록 200건 (교육/실험용 과정 모형)



강연 질의응답에서 제기된 '제도적 병목 가설'을 시험하는 샌드박스입니다.
조사 방식의 규칙 차이가 어떻게 소외를 낳는지 오토마타 실험으로 입증합니다.

Gemini Notebook

[산학화 06] 공공역사 제작: 서사 납품을 넘어 출처·판정 유보가 봉인된 다중 채널을 공급하다

[과거]



외부 대중문화에 넘겨지던
단편적인 '줄글 서사(원고) 납품'

[현재]



- 시각화 데이터 (대국민 카드뉴스)
- 지식그래프 (학예사 고증 시트)
- 인터랙션 패키지 (대학 리빙랩 교안)

"source": "Original Text", "status": "Judgment Reserved" (판정 유보)

원문 출처와 '아직 모름(판정 유보)' 조건이 하나로 묶여 유통됩니다. 이것이
역사학자가 주도권을 쥐고 사회에 직접 공급하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산학화 모델입니다.

Gemini Notebook

[국제 비교] 칠레와 예일대의 학자들은 디지털 사료 개방으로 역사적 교훈의 방파제를 세웠다

칠레 학자 주도 GitHub 오픈 DB

- 다닐로 프레이리 등 학자들이 **903쪽** 레티그 보고서를 수작업 부호화
- 피노체트 정권 희생자 **2,398명** · **59개 변수** · 결측치(NA)까지 전면 공개

(danilofreire/pinochet GitHub 저장소 개방)

예일대 오픈 아카이브 & 지식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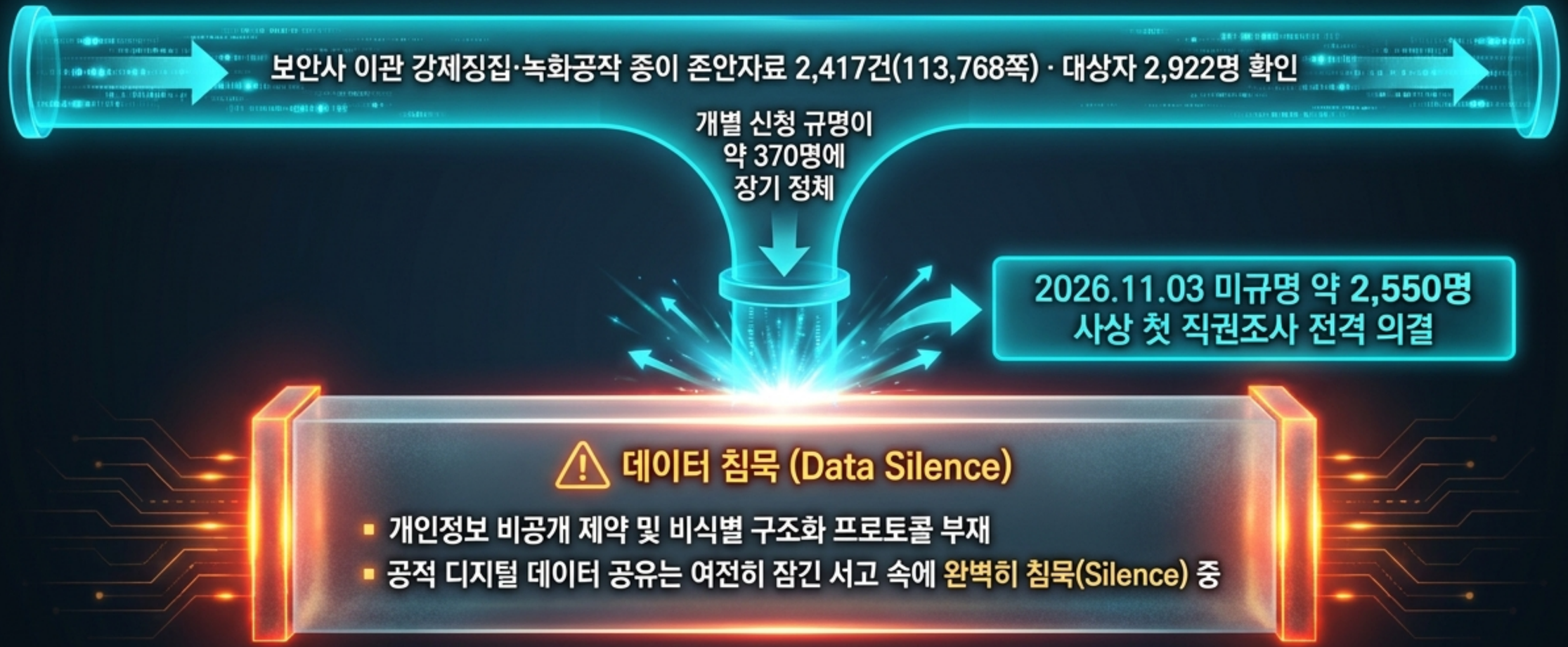
- 캄보디아 제노사이드 DB (CGDB): 인물 **19,049명** · 매장지 **309곳** GIS 정밀 매핑
- **1,700만 점** 소장품을 엮은 **오픈소스 지식그래프 LUX** 대비

(학계 주도의 다차원 연결망 구축)

학계 주도로 방대한 문헌을 **검증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해 시민사회에 열었습니다.
투명하게 개방된 데이터만이 역사 왜곡을 막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됩니다.

Gemini Notebook

[한국의 현주소] 2,550명 첫 직권조사는 시작되었으나 디지털 데이터 공유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조사의 문은 열렸지만 데이터의 문은 아직 닫혀 있습니다.
현직 위원조차 외부에서 구조화된 명단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절이 한국 과거사 정리의 현주소입니다.

Gemini Notebook

[공론장 진단] 검증된 디지털 사료가 침묵할 때 대중역사는 표류하고 선동이 공백을 점령한다



데이터 공유의 침묵 → 공론장 내 '검증 기준점 진공' 발생

대중역사가 방향을 잃고 극우적 왜곡과
자극적 선동이 날뛰는 인과 흐름 경고

trc.soohwalee.com

[해법 1] 실명 한계를 돌파하는
비식별 합성 모형 (05 조사 실험) 가동

[해법 2] 문단 출처·판정 유보가
정밀하게 봉인된 다중 채널 (06 공공역사) 구축

→ 학자가 직접 공론장의
나침반(데이터 기준점)을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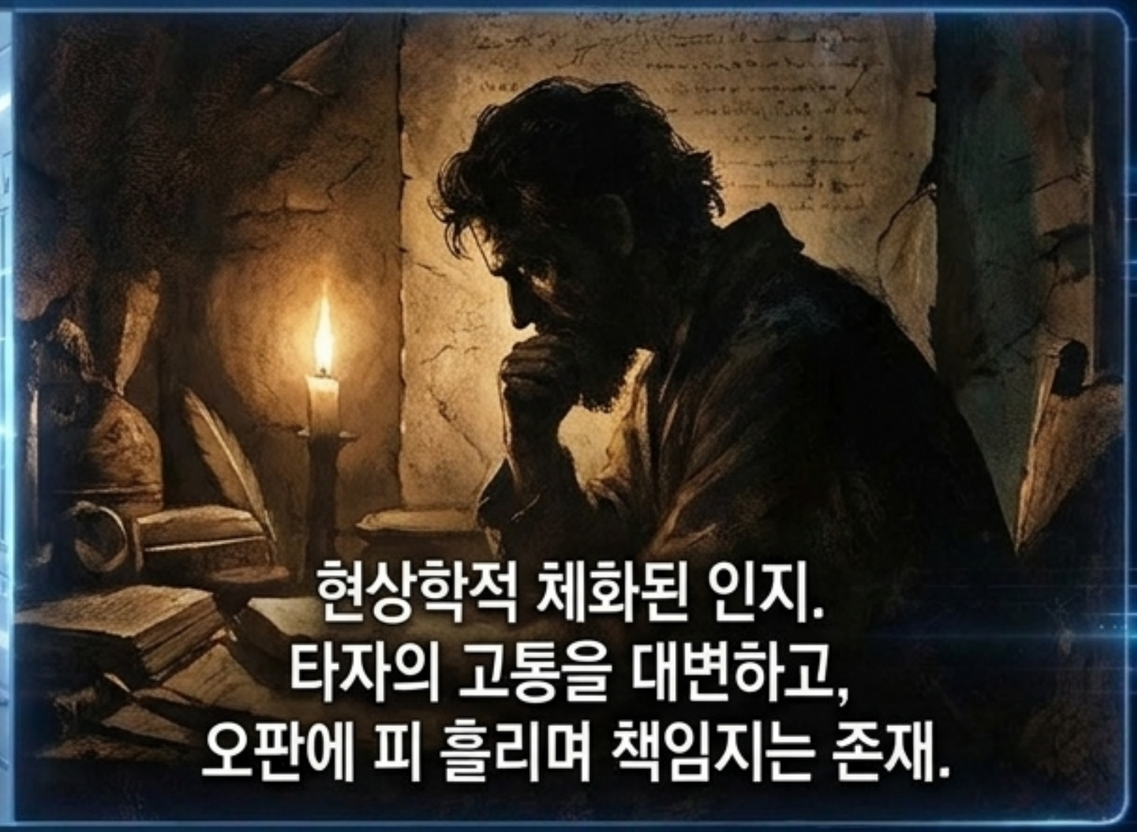
검증된 데이터의 진공을 근거 없는 선동이 채웁니다. 법적 제약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 채널을 설계하여 나침반을 제공하는 것이 오늘날 역사학자의 책무입니다.

Gemini Notebook

지휘자는 왜 '유한한 인간'이어야 하는가?



죽지 않는 기계. 무한한 연산력,
그러나 실존적 절박함도 책임도 없는 존재.



현상학적 체화된 인지.
타자의 고통을 대변하고,
오판에 피 흘리며 책임지는 존재.

지휘권은 연산 속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유한한 생명(필멸성, Mortality)을 지닌 인간 역사가만이 시선의 방향을 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

Gemini Not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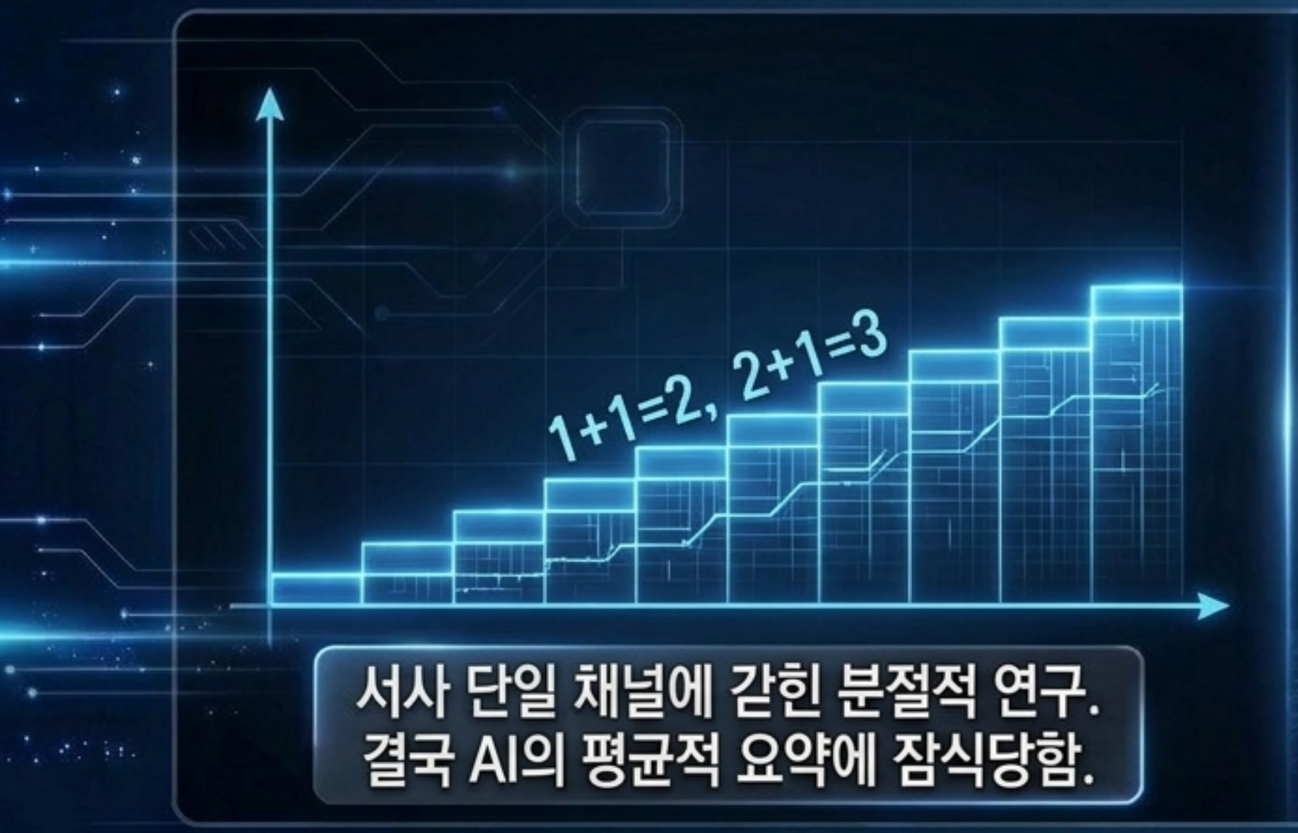
AI 안경의 시대, 기능 지식을 측정하는 근대 대학의 시험은 수명을 다했다



암기 지식의 인출 비용이 0으로 수렴했습니다. 정답을 맞히는 훈련은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은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어떤 기준으로 세계를 재구성할 것인가?" 인문학이 대학의 중심에 서야 할 결정적 순간입니다.

Gemini Notebook

합산법의 착각을 버려라. 인문학자의 시선은 이제 '로그스케일(10^n)'로 폭발한다



서사 단일 채널에 갇힌 분절적 연구.
결국 AI의 평균적 요약에 잠식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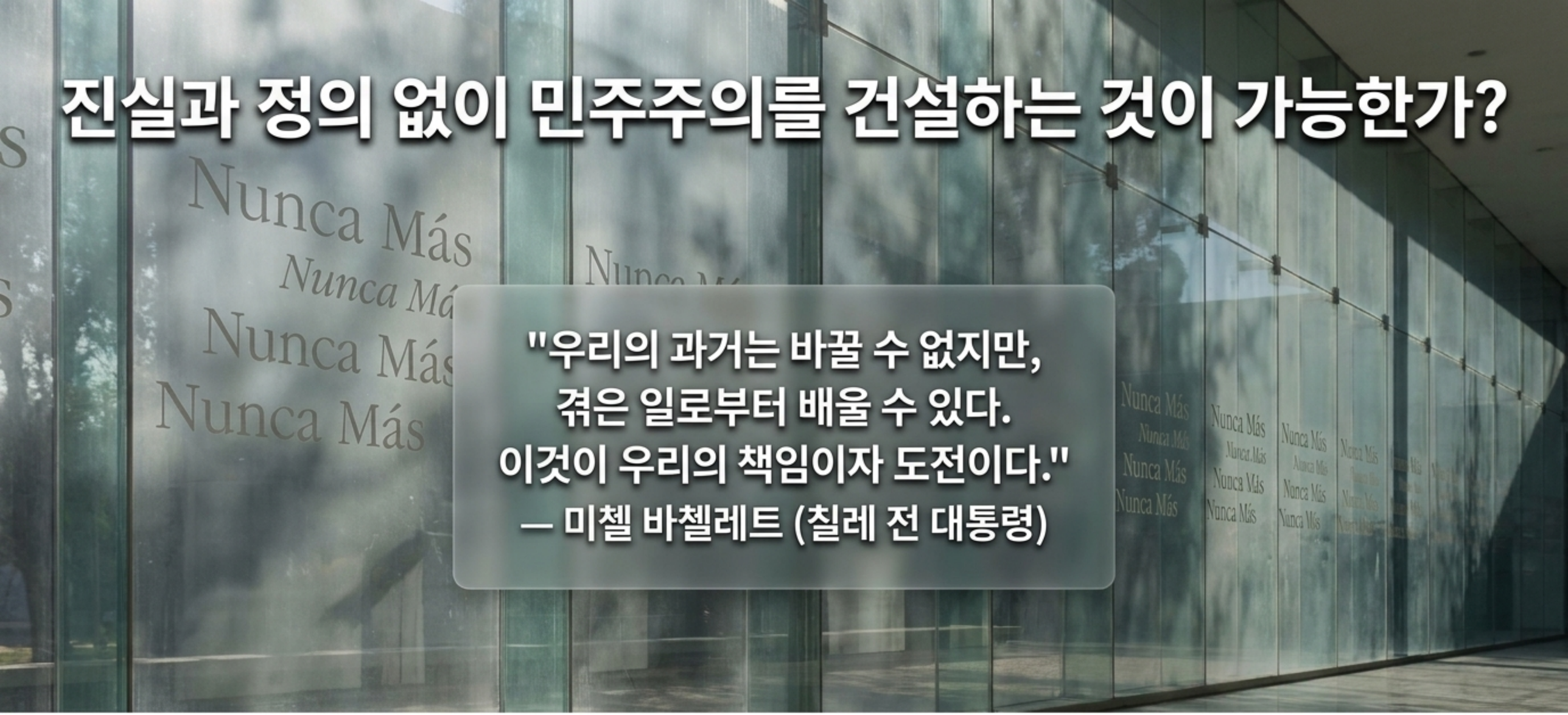


오토마타 채널 결합.
시선과 도구 차원의 교차.

예전 하던 대로 얌전히 머물지 마십시오. 연구자 1인, 학생 1인이 과거 거대 연구소 전체가 수행하던 사료 검증과 사회적 접속을 단독으로 지휘하는 스케일의 혁명입니다.

Gemini Notebook

진실과 정의 없이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겪은 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도전이다."
— 미첼 바첼레트 (칠레 전 대통령)

박구병 교수 강연을 관통하는 이 묵직한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설계한 정교한 오토마타 실험과 데이터 모델링은, 결국 인간의 고통과 역사적 책임을 정직하게 마주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Gemini Notebook

강심장 리더십: 관성을 넘어 호랑이 등에 당당히 올라타라



하던 대로의 선형적 연구와 교육 관성에 머물지 마십시오. 방어적 위축도 답이 아닙니다. 연구자 개개인, 학생 개개인이 '강심장 리더십'으로 자신의 시선과 오토마타를 결합할 때, 우리는 10배, 100배 더 막강해질 것입니다.

Gemini Notebook

디지털 역사학 워크벤치 실증 아카이브 안내

trc.soohwalee.com

[심화]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 사료 비판과 병렬 구조도

[확대] 오토마타를 통한 계량, 시공간 지도, 시뮬레이션

[산학화] 출처와 판정 유보가 봉인된 다중 채널 공공역사

지금 스마트폰과 랩탑으로 직접 접속하여 인문학자의 시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브 시연으로 전환)

Gemini Notebook

[에필로그] 데이터 너머의 무지개: 우리가 역사학을 공부하는 진정한 이유



〈아빠가 나를 사랑해〉 (2024, 제주 조천읍 선흘1리 '무지개할망' 고순자)
"아빠가 나를 사랑해 / 순자야 열명이쩌 애기보잰허난 / 나 마음이 지꺼지주('기쁘고 대견하지') / 아빠가 생각하난"

현장 단상 〈국토종단〉 — 제주 중산간 선흘리에서 임진강 민통선까지

"어제는 제주도, 오늘은 민통선. 느끼는 바가 많도다. 나가 8살 때 4·3으루 총 맞아 죽은 애비가 동생 돌본다고 칭찬한 아버지의 그림, 무지개. 할매가 인자 90살 때 그린 그림. 20년 전 죽은 엄니가 생각나서 엉엉 울었다. 민통선. 아무 관심 없던 고량포구, 칠중성, 호로고루, 경순왕릉. **내 비록 무식하다마는 배움은 끝이 없고 무식은 한이 없도다.**"

1. 선흘1리 좌표(33.5146°N, 126.6935°E) — 통계 점 하나 너머의 사랑과 승화

낙선동 4·3성과 도틀굴의 비극이 서린 바로 그 마을에서, 여든 넘어 처음 붓을 잡은 고순자 할머니는 여덟 살 때 총살당한 아버지의 다정한 칭찬 한마디를 80년 세월 끝에 찬란한 **'무지개 바람'**으로 피워 올렸습니다.

2. 지리·풍토·이념의 상처를 보듬는 일 — 오직 '필멸하는 인간 역사가'만의 소명

AI 에이전트(짚인간)는 0비용으로 기록의 결측을 계산하고 제도를 시뮬레이션하지만, 아흔 할머니의 무지개 앞에서 어머니를 떠올리며 통곡하고 선흘리에서 민통선(고량포구·칠중성·호로고루·경순왕릉)까지 발로 밟으며 화해와 의미를 길어 올리는 주체는 언제나 **살아 있는 인간**입니다.

차가운 데이터 점 하나 너머에는 인간이 견뎌낸 세월과 사랑의 승화가 살아 숨 쉽니다. 그 온기를 지키고 넓히기 위해 우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탑니다.